

성지 순례 지침

- 성지 순례는 집에서 떠나는 시각부터 집에 다시 돌아와 도착하는 시각까지 지속하는 영신수련회로서, 신앙 토착화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 순교 선열들을 기억하며, 기도, 희생, 극기, 봉사, 봉헌의 순교정신을 본받는 거룩하고 엄숙한 신심의 준성사로 거행합니다.
- 결코 관광이나 야외유흥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모두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기도서, 성가집, 묵주는 꼭 가지고 옵시다.
- 반면에 술과 장구, 북 등 유흥기구나 오락 도구는 아예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성지 순례와 야외 유흥을 함께 겸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음식은 간소하게 마련하도록 하며, 결코 고신극기의 보속 정신에 어긋날 정도로 호의호식하는 복장이나 식사는 미리 피합니다.
- 전국의 모든 성지가 거의 다 미완성 단계이니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성금 봉헌을 잊지 않습니다.
- 우리 모두가 성지 성역화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결코 비신앙적인 불평이나 추태를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 각 기관과 단체의 지도자들은 순례단에게 성지의 역사와 의미, 교훈을 사전에 미리 알리어 순수한 신심행사로 거행되도록 합니다.
- 성지에서 흙, 돌, 풀, 나무, 꽃 등을 채취하는 이기주의적 악습을 버리고, 이곳의 모든 것을 아끼고 가꿉시다.
- 오히려 꽃이나 묘목을 집에서 가져다가 기념으로 심고, 휴지나 오물을 남기지 않도록 각자가 정성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고 훌륭하게 꾸며진 성지와 경건한 순례 신심의 전통을 이 시대에 우리가 수립하여, 후손들에게 전승시키도록 합니다.

즐겁게 떠나는 성지 순례



천주교 서대문 교회

순례단들의 기도 (버스에서 출발 전에 합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천주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유적지를 찾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가문 좋고 명성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매질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성지를 찾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혹시라도 관광이 목적인 양,
흐트러지고 어긋난 생각으로
순례의 길에 임하고 있거나 않은지,
반성할 지혜를 주시고,
진정한 순례의 길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바를
주님의 은총으로 얻어서 순교자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생활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버스 안에서의 기도 순서]

- ☞ 시작 성가 ()번
- ☞ 묵주기도 00의 신비 5단
- ☞ 성모 찬송
- ☞ 자유 기도 (1 ~ 2명)
- ☞ 마침 성가 ()번

성지 순례 시작 기도 (합송)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통의 길!
순교자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걸어가신 신앙의 길!
우리가 매일 겪어야 하는 고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로나 행동로나 믿음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은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줌으로써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순교 선열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분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신앙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주님! 이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이어 받은 우리가
현대에 맞는 순교 정신으로 믿음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지 순례 마침 기도 (합송)

주님, 이 땅의 순교자이신 000 0000님의 발자취를 찾은
오늘의 순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통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걸어온 길을 회상하며 흠뻑 젖었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임과의 상봉을 기다리는 연인의 마음처럼
설레임으로 시작 했던 순례를 이제 끝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순례가 여정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만족감보다는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는 각오와 다짐이 피어나게 해 주소서.
하나의 길은 새로운 길로 이어지고,
임과의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함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인식되게 하소서.
오늘 순례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말씀과 사랑의 씨앗을 찾았는지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눌 형제들을 위해
사랑의 시선을 놓치지 않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순교자들이 걸으셨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형제들의 손을 맞잡고
주님과의 완전한 만남을 위한 새로운 순례의 길을 떠날 것입니다.

"주님, 내일을 향한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아멘."